

월요논단



남동우

해군협회 연구소장·예비역 해군 준장

2026년 '붉은 말의 해' 병오년이 힘차게 출향했다. 지난 2025년을 돌아보면 세계정세는 물론이고 국내 정세의 대변화가 일어난 한 해가 아니었나 싶다.

세계정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슈는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취임한 것 것이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국제 질서가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이런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2026년 새해에 거는 기대

기존 세계 질서를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그린란드 야록에 관세 카드를 빼 들고 있는 트럼프를 지켜보면서 미래 예측이 극도로 어려운 불확실한 시대가 도래한 듯 느껴진다.

다행스러운 것은 세계정세와는 달리 국내 정세는 다소 안정을 되찾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탄생한 이후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심판 정국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한 대립도 일단은 해소되는 등 성공적인 출발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 안보적으로도 새로운 문민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혼란한 군심을 잘 다스리고, 사기 진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다소 안정적인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난해 뜨거운 관심을 끌었던 K-방산 또한 그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약진하고 있다. 특히, K-해양조선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카드로 제시한 MASGA와 이와 연계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이슈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K-해양조선의 주력인 한국 조선업체들이 아시아 시장을 뛰어넘어 글로벌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데, 이는 올해에도 계속될 것이다.

특히, 한화오션의 경우 필리조선 소 인수 및 경영 정상화를 뛰어넘어 제2의 조선소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공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도전은 높이 살만하며,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겠다.

트럼프 밸 세계정세 불안정성은 우리에게 상당한 위협요인임은 분명하다. 이런 불안정한 시기에 국

가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이는 정부의 선택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국내 정세는 아직도 여러 갈등 요인들이 남아 있지만 전제적으로 다소 안정적인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정책 결정과 추진이 정치적 실익을 따지거나 일회성 요식 행위로 그쳐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더욱 정교하고 진실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토록 시스템화 돼야 한다. 특히, 현재 독일과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우리 국내업체(한화오션)가 반드시 수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주도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

열린마당

제주 119항공대, 하늘로 생명을 잇다



허남민

제주소방안전본부 119항공대 기장

제주에서 도민의 생명을 향해 가장 먼저 날아오르는 존재가 바로 119 항공대 소방헬기 '한라매'다.

한라매는 항공구조와 구급 이송은 물론, 응급 산모 이송과 장기 이송, 중증 응급환자의 수도권 병원 이송, 해상 수색·구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새해 첫날 새벽, 여수 상공을 비행 중이던 한라매 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응급 산모를 이송하던 헬기 내에서 태어난 작은 생명은 모두에게 잊지 못할 감동으로

남았다. 119항공대가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준 순간이었다.

2019년 발대 이후 899건의 출동과 연간 평균 300시간 이상의 운항 실적은 전국 항공대 중 최상위 수준이다. 2025년에는 최단기간 2000시간 무사고 비행을 달성했고, 3회 연속 항공안전 우수 항공대로 선정됐다. 강한 바람과 야간 해상 비행, 산악과 해상이 혼재된 구조 환경 속에서도 반복된 훈련과 철저한 준비, 그리고 팀워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럼에도 제주는 현재 소방헬기 1대 만을 운용하고 있다. 점검이나 고장 시 중증 응급환자 이송이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 소방헬기 2호기 도입은 항공임무 공백 해소는 물론 신속한 국가동원 체계 가동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투자다.

새해 첫날 새벽, 여수 상공을 비행 중이던 한라매 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응급 산모를 이송하던 헬기 내에서 태어난 작은 생명은 모두에게 잊지 못할 감동으로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오지사 "尹 정역 5년, 턱없이 부족"

SNS 통해 판결 입장 밝혀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의미가 있다"면서도 형량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

오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헌법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든 범죄의 무게에 비춰 볼 때 과연 합당한 형량인지는 강한 의문이 든다"며 "국민이 기대한 정의와 법 상식에는 턱없이 부족한 결과"라고 평가.

이어 "남은 재판 과정에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가치가 더욱 무겁고 엄중하게 다뤄지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

폐식용유는 재활용도움센터로

○…제주시가 시민들이 폐기물을 보다 쉽고 안전하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재활용도움센터에 폐식용유와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을 설치·관리해 눈길.

특히 폐식용유는 하수관 막힘이나 각종 환경문제와 처리 비용 부담을 야기하고, 폐의약품은 가정에서 종량제봉투에 넣어 일반쓰레기로 클린하우스에 배출하면 고양이 등 동물의 접근이나 비비bam 등 기상 영향으로 외부 유출 우려가 커져 토양 및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

홍권성 시 생활환경과장은 "폐기물을 올바르게 배출하면 소중한 자원이 되고 환경오염을 예방한다"며 "폐식용유와 폐의약품 분리배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 백금탁기자

사설

무관세 만다린, 매취사업으로 선제적 대응

미국산 만다린 무관세 수입에 맞서 도내 생산자단체가 만감류 매취사업으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만감류 시장 주도권을 사수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제주농산물수급관리운영위원회 산하 감귤위원회는 미국산 만다린 수입에 대응해 매취사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매취사업은 가격하락이 우려될 때 농·감협

이 농산물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일괄 구매해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농가 피해를 차단하고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매취 사업은 이달부터 지역 농·감협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매취 물량은 만감류 전체 생산 예상량의 10%인 1만t 규모다. 다만 매취가격은 산지 상인거래 상황과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참고해 추후 결정된다. 감귤위원회는 만감류 주 출하기인 1~4월에 맞춘 소비촉진 홍보 마케팅을 진행한다.

민선 8기 마지막 인사, 도민 신뢰 회복 기대

제주도가 15일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마지막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878명 규모 인사는 임기 말에 이뤄진 만큼 조직 전반의 안정을 기본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남은 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판단이다.

주요 국장급 보직에 업무 경험과 실행력이 검증된 인사를 배치한 점은 이러한 기조를 뒷받침한다. 농축산식품국장과 상하수도 본부장에 과학기술직렬을 임명해 전문성을 강화하려 한 시도와 성과 우수 공무원 발탁추천제를 운영하며 성과 중심 인사 원칙이 분야별로 일관되게 적용됐는지도 살펴볼 대목이다.

인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번 인사가 관행적 조직 안정에 머무르지 않고 책임과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민선 8기 마지막 인사가 도민 신뢰 회복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나주김공(병역(행년 68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6년 1월 19일

배우자 이명숙

아들 김동현 며느리 양희주

동욱

이의현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농슬고 비새는 곳에 우례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채권신고 공고(제3차)
제3차
1. 채권신고기간: 2026년 1월 12일부터 2026년 3월 17일까지
2. 신고장소: 재단법인 덕산문화재단 사무실
[제주시 애로로 1252, 301호]
3. 신고방법: 우편등기권장 또는 방문접수
4. 유의사항: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채권은 청산 절차에서 제외됨을 알려 드립니다.
2026년 1월 19일
재단법인 덕산문화재단
청산인 김동언

백도리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리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평인
2009 백도리지 평인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호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 JK 약백도리지연구소



묘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 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주토박이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